

번역된 소설 제목의 분석: 등가와 기능

최 미 경
(이화여대)

1. 연구제안

1.1 제목과 번역

문학작품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며 동시에 작품에 대한 메타언어적인 정보를 노출 또는 은닉하고 있는, 통사적으로는 한 문장이 채 되지 않는 언어단위이며 작품을 구별하기 위해, 작가를 인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징적인 언어표현이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제목이 없다면 줄거리, 배경 등을 길게 묘사해야만 해당 작품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사용이 되었으나 인쇄술이 크게 발달하고 저작권의 개념이 나오는 19세기에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었다고 하는 문학작품의 제목은 그 짧은 길이에 비해 통사적, 의미적, 수사학적, 화용적, 기호학 적인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어 문학번역작업에서 신중하면서도, 창의적이어야 하며, 또 도서 출판이라는 사회, 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이 되어야 한다. 사르트르와 같은 저명한 작가조차도 그의 소설 『구토』의 제목을 결

정하는데 출판사의 의견을 따랐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르트르는 내면적, 정신세계의 성찰에 대한 함축을 담은 “Melancholia (멜랑콜리아)”라는 제목을 제안했으나 당시 편집장이었던 장 폴랑(Jean Paulan)이 『구토』(*Nausée*)라는 제목을 강하게 권했다고 한다. 그 결과 실존적 상황에서 등장인물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제목에 더 잘 표현되었고 작품의 성공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훌륭한 작품 제목은 작품 내용을 너무 직접적으로, 또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내용을 환기시키고 독자를 꿈꾸게 하고 웃게 하는 제목(Zoé, 2013)이어야 한다고 한다. 움베르토 에코 역시 제목이 작품의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특정부분에 대한 묘사보다는 상징적이어야 한다고 자신의 소설 『장미의 이름』을 언급하며 밝힌 바 있다.

문학작품 제목의 번역은 본문과 달리 번역가의 권한으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번역의 언어, 문화적 전이의 차원을 넘어선다. 또, 한 번 선정이 되면 상당기간 그 작품의 정체성을 대변하기 때문에 번역을 교체하기 어렵다.

조에는 문학작품의 제목들이 때로는 번역가들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듯하다. 먼저 프루스트(Proust)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의 제목을 영어로 번역하는 어려움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2013: 52) 프랑스어의 *perdu*라는 동사 분사형은 과거의, 잃어버린, 사라진, 허비한, 쫓겨서 써버린 등 다양한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프루스트의 소설은 *Remembrance of things Past* 라는 만족스럽지 못한 제목으로 출판이 되다가 최근에는 *In Search of Lost Time* 이라는 제대로 된 번역으로 출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어로 번역된 한국문학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원제와 번역 작품의 제목에 대한 번역 방식을 분류하고, 각 번역방식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등가의 번역이 진행되었는지, 또 번역의 기능이 잘 수행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원제목과 번역된 제목의 단순한 언어적 비교가 아닌, 제목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번역가, 출판사의 선택에 대해 가능하다면 기술하고자 한다.

한국문학이 외국어로 번역 소개될 때 프랑스어 번역본에서 영어, 스페인어 등으로 소개되는 경향¹⁾이 있기 때문에 제목의 번역은 중요하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동인 중에 하나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번역된 결

과물을 대상으로 언어적 정합성을 분석하였고, 특히 영화번역 또는 영어 중국어 등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프랑스어 번역에 관한 연구는 서사텍스트 제목의 언어적 정합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이 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목의 언어적인 처리에 대한 분석 외에도 제목 번역의 과정, 번역가가 제목의 결정에서 수행한 역할에 대해서도 기술해보고자 한다. 한국 문학의 지위가 해외에서 발전단계에 있는 현 시점에서 한-외국어 방향 문학 번역가는 작품 선정, 출판사 섭외 등의 과정에서 대부분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 출판사에 한국어 편집장이 부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번역의 제목에서도 역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²⁾. 번역가가 “작가의 입장에서 작품의 정신을 번역하는지, 번역가로서 문자를 번역하는지(라드미랄, 2004 : 16)”, 즉 번역가가 작품의 의미와 상징을 중심으로 해외의 문화에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제목을 능동적, 창의적으로 제안하는지 또는 원작의 충실성을 의무로 하는 번역가의 입장에서 제목을 처리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2. 선행연구

제목번역에 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자인 홉(Hoek)은 *La Marque du titre* (제목의 표식, 1980)³⁾이라는 기념비적인 저서에서 제목이 갖는 언어, 역사, 사회, 산업적 제반 요소에 대한 방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처방론적, 기술론적

- 1) 뒷부분에 사피로(Sapiro)의 저서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한국문학번역원의 영어 및 서유럽어 번역 출판 팀에 따르면 미국의 에이전트들이 한국 작가의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 프랑스어본을 읽고 출판작품을 고른다고 한다. 실제로 한국문학번역이 지원한 작품들 중에서 출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프랑스어권이 가장 많다고 한다. 심지어 황석영 등 일부 작가의 경우 프랑스어 번역본이 정본이 되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 2) 외국어-한국어 번역의 경우 출판사가 번역가에게 번역을 의뢰하나 한-외국어의 경우 번역지원금 등을 받아 대부분 번역이 진행되므로 지원기관이 장려하는 방향의 작품 선정, 작가의 허가 받기, 번역 지원금 신청 등을 거쳐 번역 후에 출판사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출판사 섭외가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한국인 번역자를 확보한 몇 외국 출판사에서 직접 번역가에게 의뢰 후 번역가를 위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개발되었다.

분석³⁾을 진행하여 제목의 형태, 의미, 주제, 기능 등에 대해 진행한 치밀한 이 연구에 대해 주네트(Genette)는 “제목학”의 시초라는 명칭을 부치며 *Seuils*(입구)에서 문학서적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의 일부로서 표지, 첫 페이지에 권위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제목의 위상과 그 기능에 대해 요약적이면서도 분석적인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쾨의 세세한 제목의 분류보다는 그 기능을 요약 분류하는데 중점을 둔 주네트 (1987 : 75)는 작품이 독자를 위한 것이라면 제목은 일반인 모두를 위한 것이며 특히 서적의 유통에 참여하는 대상으로 “텍스트가 독서의 대상이라면, 제목은 유통, 다르게 말하면 서적에 관한 대화의 대상”이라고 규정짓는다. 제목의 기능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여 1.명칭, 지시의 기능 2. 주제에 대한 메타 언어적 기능 3. 암시적 기능, 4. 유혹적 기능이라고 제시한다. 그러나 그는 네 번째 기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는데 그것은 책보다 제목이 더 매력적인 경우 제목이 책 판매를 위한 “포주”와 같다는 푸르티에르(Furtière 1666)의 입장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테라니 (Tehrani 2010)는 문학작품의 제목을 명시적, 함축적, 암시적, 묘사적, 정보전달의 범주로 나누고 제목번역에 대한 자세를 보면 본문 번역에 대한 번역관이 들어난다는 점을 주목했다.

카생(Cachin 2006)은 “À la recherche du titre perdu 잃어버린 제목을 찾아서”라는 논문에서 원문과 다르게 번역되어 원작을 알아볼 수 없게 제목이 변형된 경우를 언급하면서 제목 번역을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번역자외의 조건들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의도적으로 한정된 코퍼스를 설정하여 진행한 이 연구는 문학작품 제목의 번역이 언어적인 과정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협상과정이라고 밝히며 출판사도 상당히 관여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또 쾨이 제안한 제목의 다양한 기능들과 주네트의 4개의 기능들을 종합하여 세 개의 기능으로 한정짓는다. 명칭 및 지시기능, 내용의 제시기능과 대중의 유혹이 그것이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번역제목들이 대부분 원문의 제목을 존중한 직역 번역임도 밝히고 있다.

Introduction à l'analyse des oeuvres traduites (번역작품의 분석입문)에서 리스테루치-루드니에키(Risterucci-Roudnicky, 2008)는 번역작품의 언어, 문화,

3) 쾨의 연구는, 제목이 원문에 맞게 적절하며, 짧고, 강한 인상으로 독특하고 명쾌해서 독자의 관심을 유발해야 한다는 처방적 입장과 제목의 다양한 형태, 길이, 주제, 언어학적, 역사적인 기술을 하는 기술론적 입장을 동시에 취함

사회적 혼종성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진행하며 제목 번역의 처리방식을 다룬다. 제목도 혼종성에 예외일수는 없으며 특히 원문의 독자가 아닌 이국정서의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므로 출판사, 번역가, 작가간의 이문화간의 교섭이 진행되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임을 밝힌다. 또 제목번역을 직역(titre littéral), 변경(titre modifié), 변환(titre transformé) 방식으로 크게 나뉘고 동시에 으로 역할을 다한 제목이 개선 또는 시류에 따라 재번역 되는 양상이 관찰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연구 중의 하나인 김순영(2009)의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본 소설제목의 번역」의 경우, 노드의 기능주의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영한 번역소설의 변환 현상을 살펴보았는데 일반, 로맨스, 추리, 청소년의 4개의 분야에서 각 50개의 소설을 분석단위로 변환현상을 연구, 하위 장르별 기능에 따라 다른 전략이 채택됨을 확인하였다.

「외화제목의 번역규범에 관한 기술적 (descriptive)연구」에서 임종우와 이상빈(2016)은 1년 치의 영화번역 제목의 원문 및 번역문 쌍의 번역기법을 기술적 관점에서 탐구하였다. 정량분석 시행 후 특정한 번역현상들을 객관적인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제목 번역의 분류기준을 “첨가(addition), 정의(definition) 직역(literal translation), 생략(omission), 새로 쓰기(text production), 바뀐 쓰기(rewriting), 음차(transliteration)”으로 분류하고 제목에 따라서 2개 이상의 기법이 사용된 제목도 분석하였다. 자세하게 번역 기법에 대해 분석한 이 훌륭한 논문의 아쉬운 점은 저자들이 고백한 데이터의 한계와 주관적인 기준 보다는 왜 그런 방식이 번역에 채택되었는지, 또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의 부재라 할 수 있다.

한국어 작품의 외국어 방향 번역에 대한 거의 유일한 논문인 오미형(2012)의 「한국영화의 번역제목 고찰」은 제목으로 관객을 이끄는 역할이 필수적인 영화분야이기 때문에 제목은 “상품의 이름이나 브랜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입장에서 등가이론, 효과이론 등을 적용하여 번역된 영화제목을 검토한다. 그 결과 무번역, 음차, 직역, 조절, 새로 쓰기의 기법이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직역이 원 영화의 제목을 정당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라는 하나 문화적 차이, 공유정보의 차이에서 기인한 오역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함을 밝히고 있다.

「잃어버린 제목을 찾아서- 서사텍스트의 제목 번역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은 프랑스와즈 카생의 논문의 제목과 일부가 일치하는 남윤지(2015)의 논문으로 원제를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된 제목과 마주하는 순간의 의문에서 문제의식이 시작되었음을 밝힌다. 또 이 논문은 저자가 2012년에 발표한 “Traduire le titre : enjeux sémiotiques et théoriques de la traduction des titres d'oeuvres narratives (France-Corée) (제목번역하기, 서사텍스트 제목 번역의 기호학적 이론적 쟁점)”의 정리본으로 “1954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과 프랑스 간에 번역이 이뤄진 영화 및 문학작품의 제목 쌍으로 코퍼스를 구성하여 분석”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방대한 박사논문의 코퍼스를 대상으로 서사 텍스트 제목의 세 가지 기능(명칭 및 지시적 기능, 메타-언어적 기능, 유혹적 기능)으로 나누고 분석을 진행했다. 방대한 코퍼스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제목번역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이 논문에서는 번역이 “변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번역자가 바로 그러한 행위의 중심에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번역자가 작품의 제목에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는 점은 아쉽다.

1.3 참조이론

한국어에서 프랑스어로 번역된 문학작품의 제목분석에 근거를 제공하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이다.

다양한 논문에서 이미 분석의 도구로 활용된 바 있는 기능주의 이론으로 노드(Nord, 2006)에 따르면 번역은 목표와 기능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원문과의 언어적 등가성을 추구하는 작업이 아니다. 작품의 제목 번역에 있어서도 원문의 제목과 번역문의 제목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문화적 격차 때문에 변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기능주의 이론에 따르면 번역가가 제시하는 직역적인 제목이 출판사의 출판 정책에 따라, 출판 시장의 문화 패러다임에 따라, 수출의 전략에 따라 변형, 또는 이국화되어 간다. (리스트루치-루드니에키 : 2008)

문학번역에 있어 번역자로 하여금 언어적 정합성에 의거한 것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게 하는 요소로서 번역문에서의 등가의 효과를 추구하는 ESIT(파리통역번역대학원)의 의미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단어가 연속해서 발화되면서 조성하는 의미가 탈언어화된 단계를 통해 통역사에 의해 자연스럽게 재발화되는 현상을 통역과정이라고 정의하는 이론은 이후 기술번역, 문학번역으로 적용, 확

장이 된다. 문학번역에서는 이스라엘 (Israël : 2005)이 발전시킨 의미의 효과가 적용가능하다. 문학번역에서 의미와 형태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사실은 모든 번역에서) 특히 문학텍스트에서 언어의 형태는 의미를 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시니피앙(signifiant)과 시니피에(signifié)가 언어마다 다르게 조합하여 의미를 구성하기 때문에 출발어의 형태를 도착어에 전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출발어 언어형태의 기능을 의미에 포함시키며 재표현 시에 그 형태가 생산한 등가의 효과를 창출할 언어형식을 추구하게 된다. 즉 의미의 등가 효과를 추구하게 된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 본 문학번역의 제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독자들에게도 지시적, 유혹적 기능을 갖춰 원제목의 독자와 등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번역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목 번역의 분석을 위해서 리스테루치-루드니에키 : 2008)가 제안한 3가지 번역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직역번역, 변경번역, 변환번역이 그 세 가지 방식으로, 더 미시적인 분류를 제안한 연구들의 경우도 기본적인 분석의 틀은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이다. 직역은 제목을 구성하는 언어적 요소들, 단어수, 1차적 의미를 존중하여 단어 대 단어 번역, 즉 단어 대응번역을 의미한다. 변경번역은 제목이 다른 제목으로 완전히 바뀐 경우를 말한다. 변환번역의 경우 제목의 언어적 요소의 일부는 존중하여 번역하되, 단어의 첨삭 및 암시 등 다른 요소들이 첨부되어 일부 변경이 된 경우이다. 뒤의 분석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한국문학 작품의 프랑스어 번역제목

2.1 한국문학의 프랑스어 번역상황

1892년 서구어로서는 처음으로 프랑스어로 『춘향전』이 *Le printemps parfumé*라는 제목으로 홍종우, J.H. 로니에 의해 번역 출판된 이후 1990년대까지 간헐적으로 전래동화 등이 프랑스어 소개되었다. 1990년대 이후부터 비로소 번역다운 번역이 진행되나 한정된 번역자 수와 불완전한 번역, 다양하지 못한 번역작품의 제공, 한국의 낮은 국가적 신인도에 따른 출판의 어려움 등에 봉착해 있었

다. (최미경 : 2012)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의 다양한 지형이 프랑스에 더욱 적극적으로 소개가 된다. 1990년대 민주화가 성취된 이후에 한국의 젊은 세대 작가들의 개인주의적이며 독창적인 작품들이 많이 소개 되었다. 특히 프랑스 내에서 한국문학은 1995년 Belles étrangères 행사를 계기로 2000년대에는 한국문학특집이 대표적 문예지인 NRF, Europe, Po&sie, BREVES⁴⁾ 에서 진행되며, 2015에는 생 나제르에서 한국이 아이티와 주빈국인 MEET 2015⁵⁾ 행사를 그리고 2016년에는 파리 도서전 주빈국행사⁶⁾가 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파리 도서전은 작가와 독자가 직접 만나는 다양한 행사가 많이 진행되어 수십만의 프랑스 독자들이 한국작가의 강연을 듣고, 대화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프랑스어는 세계 언어지형에서 영어만큼의 헤게모니를 갖지 못하지만 문화, 문학언어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언어이다(Calvet, 1999). 노벨문학상의 언어이며 (가오싱겐, 르클레지오, 모디아노), 번역사에서도 “부정한 미녀들(무녕, 2012)” 등의 문학번역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언어이다. 프랑스 도서출판센터 (CNIL)에 따르면 전체 출판량의 약 28% 이상을 해외서적 번역이 차지하는 시장이다. 또 독립서점, 문예지, 문학전문기자의 역할이 중요한 문화권이다. 아를르(Arles) 문학번역가의 집, 프랑스 국립도서센터와 같은 기관이 저작, 번역, 도서 유통 진흥에 힘쓰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프랑스에 갈리마르(Gallimard), 쇠이(Seuil) 같은 대표적인 대형 출판사들뿐만 아니라 악트쉬드(Actes Sud), 피키에(Picquier), 세르주 사프랑(Serge Safran), 드 크레센조(Decrescendzo) 등과 같은 외국문학전문 출판사들이 존재, 언어와 지리적 다양성이 보장된 문학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젤 사피로(Sapiro)는 "세계화 시대의 문학번역의 불평등현상"이라는 발표에서 프랑스에 네덜란드어나 한국어를 비롯한 소수언어의 번역이 알려지고 있는 것은 몇몇 제도권 기관이나 출판사의 의지뿐만 아니라 바로 재능있는 해당 언어권 번역가들이 용기있게 자신의 문학을 번역 소개한 덕분이라고 평가하고, 자신이 인터뷰한 미국의 출판사들은

4) www.klti.or.kr (자료란 및 도서관에 한불 문학행사 관련 다양한 자료와 사진 등 탑재되어 있음)

5) <http://www.meetingsaintnazaire.com/-2015-Traduire-la-vie-270-.html>

6) <http://blog.naver.com/itlk?Redirect=Log&logNo=220664249805>

시간을 접하기 위해서는 프랑스로 한국문학작품이 번역이 되기를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프랑수가 갖는 중개, 전달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7)

세계문학지도에서 한국문학이 진흥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영어로의 번역이 많아지는 것으로는 부족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영미권의 경우 해외문학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단지 3%의 출판물만이 번역물인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따라 프랑수와 같이 중간 헤게모니를 가진 언어방향으로의 번역이 중요해진다. 이 언어들—특히 프랑스어—을 통해서 세계문학지도에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프랑스로 번역된 작품들의 제목의 중요성도 주목해야 한다. 출판 교섭이 진행될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도 서적의 제목이며, 제목이 주는 매혹의 효과가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한다면 출판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다.

실제로 이문열, 황석영⁸⁾, 이승우 등 국외에 10개 국어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작가들은 프랑스어 출판사에서 출판된 후 프랑스어 출판사가 에이전트 역할을 하면서 저작권 계약이 이루어져 유럽, 영미, 남미 대륙 등에서 번역이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박경리, 박완서, 오정희, 은희경, 한강, 김애란, 성석제, 김경욱, 정영문, 이인성, 편혜영, 김중혁 등 다수 작품이 프랑스로 먼저 소개가 되

7) « La reconnaissance de la littérature néerlandaise ou coréenne en France est largement redevable à la compétence et au talent de traducteurs qui sont parvenus à les imposer. La géographie de la traduction tient donc aussi à la distribution inégale des compétences, laquelle n'est pas étrangère aux rapports de force entre les pays : [...] J'ai ainsi interviewé des éditeurs américains qui attendaient, par exemple, qu'un livre coréen soit traduit en français afin de le lire directement, ou un éditeur chilien qui avait également besoin d'une traduction en français pour accéder à des textes écrits en arabe ou dans d'autres langues. Le faible volume de traductions entre langues ou pays périphériques s'explique en partie par ce problème de compétence linguistique : la circulation entre petits pays et langues périphériques passe généralement par une langue centrale. »

Gisèle Sapiro, « Des échanges inégaux, géographie de la traduction à l'heure de la mondialisation » :

<http://www.sgdl.org/la-documentation/les-dossiers/1115-des-echanges-inegaux-geographie-de-la-traduction-a-l'heure-de-la-mondialisation>

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2/0200000000AKR20160112072700005.HTML?input=1195m>

고 영어 및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이 되었다.9)

2.2 한국문학의 프랑스어 번역 작품 수

한국문학번역원¹⁰⁾이 작성한 1892년부터 프랑스어로 번역된 작품 목록에 기록된 작품들은 2016년 기준으로 총 443 종이며, 이중 비문학서 및 아동문학을 제외하면 문학작품은 총 355 종이다. 비문학서의 경우 한국의 건축, 판소리, 문화유산에 대한 서적으로 원제목이 그대로 번역되고 있고 제목이 갖는 매력적인 기능보다는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기능이 중심이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였으며, 김진경의 『고양이 학교』를 비롯한 아동문학의 경우 극소수이며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문학서적과는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제목이 결정된다고 판단되어서 역시 제외하기로 한다. 총 355종의 제목 번역의 방법론적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3. 한국문학 작품제목의 프랑스어 번역 양상분석

3.1. 직역

총 355작품 중에서 번역시 제목의 부분 변형이 이루어진 11개의 작품과 완전히 제목이 달라진 14개의 작품을 제외한 330작품의 경우 직역이 진행되었다. 직역에는 음차, 단순한 대응역 등을 포함되며 몇 작품의 예를 들어서 직역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표적인 직역방식은 한국어 제목 단어의 1차적인 뜻을 대응번역으로 처리한 경우이다.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La Végétarienne*으로 임철우의 『등대』가 *Le phare*로, 편혜영의 『재와 빨강』이 *Cendres et Rouge*로 번역이 된 경우이다.

9) www.klti.or.kr (출판연도가 포함된 기 번역작품 리스트 참조, 또 명시화된 자료는 없으나 이문열은 Actes Sud에서 황석영은 Zulma에서 출판후 에이전트로써 유럽어, 북남미에 관한 판매를 진행함) 그 외에도 작가들이 독자와의 만남 행사 등에서 처음 출판된 해외국가가 프랑스였음을 밝힘 (오정희, 은희경, 김중혁, 성석제, 김언수 등등)

10) www.klti.or.kr

위의 작품들의 경우 원제의 대응 번역이 작품의 지시기능, 작품의 내용에 대한 메타기능, 독자를 매혹하는 기능에서 원작이 수행하던 기능을 수행한다. 또 프랑스 어권 독자들에게 대한 효과 면에서도 의미, 문화 요소 전달이 무난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직역방식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음차 번역의 경우 전체 소설 제목이 음차로 번역된 경우 김사과의 『미나 *Mina*』, 신경숙의 『리진 *Li Chin*』, 서정인의 『달궁 *Talgung*』 등으로 주인공의 이름 또는 지명이 제목인 경우에 그대로 로마자로 음역이 되었다. "미나"의 경우 로마자라도 여성 주인공임을 짐작할 수 있다면 "리진"의 경우는 중국인 명칭으로 읽힌다. 푸른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던 소설을 모아서 신경숙 작가가 리진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한 소설로서 조선말기에 궁정의 아름다운 무희 리진과 프랑스의 초기 전권대사였던 콜랭드 플랑시의 사랑이야기를 역사적 배경에 소설화한 작품이다. 프랑스어 제목의 경우, 리진이 콜랭드 플랑시의 연인이었음을 표시하는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더 전략적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 책은 한/불 교류의 역사적 배경을 다루는 만큼 대표적인 번역가들에 의해 프랑스에 야심차게 소개가 되었지만 독자, 언론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했고, 제목의 선택에도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하는 짐작을 하게 한다. 즉 제목의 직역 번역은 지시 기능을 통해 원본과의 일치성을 표방하지만 소설의 내용 제시나 매혹의 기능은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정인 작가의 『달궁』 역시 지리산 근처의 지명을 제목으로 한 작품으로 소설기법에 대한 실험 소설일 뿐만 아니라 언어의 전라도적 특성과 문화를 깊이 다룬 작품으로 한국어로도 난해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의 제목은 한글제목의 프랑스어 음역으로는 지명인지, 인명인지, 특별한 뜻을 지닌 단어인지 짐작을 할 수가 없다. 제목의 소설 내용 인지 기능이 충분히 수행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시집 『님의 침묵』은 *Le silence de Nim*이라고 번역이 되었다. 번역자들은 님이 한국어에서 절대자, 연인 등을 표현하는 다의성 때문에 번역 하지 않고 음차로 님을 그대로 표기했다고 한다. 한국어를 모르는 다수의 독자들의 경우 다의성은 물론 전혀 뜻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작품의 내용제시, 매혹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제목의 경우는 출판사에서 이국적인 정서를 위해 전략적으로 고집하는

경우도 있다. 황순원 단편집 『목님이 마을의 개』의 경우 연구자를 포함한 번역자들은 목님을 일반 명사로 처리 *passe-col* 등의 표현을 생각했는데 출판사에서 이국적인 지명을 고집하였다고 한다. 세르주 사프랑 당시 프랑스 쥘마 출판사 편집장은 언어적 충실성만을 고려 직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문화적인 요소가 잘 표현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에서 발표한 바 있다 (2004). 목님이 마을의 떠돌이 암개의 이야기에 대한 이 소설은 *La chienne de Moknomi*라고 이국적 매혹을 고려하여 번역하였는데 독자들은 지명의 이국적 요소보다는 *chienne* (암개)이 프랑스어로 중의 법이라고 생각해서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여성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전혀 다르게 수용이 된 재미난 예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르몽드(2008년 10월 23일 : “Alors, on ne traduit plus ?(이제는 번역 안해 주나요?)”는 직역 번역 중 음차방식을 통해서 제목을 발음대로 적는 방식이 영화 번역에서 영어 제목인 경우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대부분이 영어를 이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제목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뜻이 이해가 되지도 않는데 번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번역가의 게으름 또는 번역가의 존재가 점점 미미해져가는 현상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영미권 작품의 경우 한국어 번역시 유사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를 출발어로 하는 번역의 경우, 칼베 (1999)가 “언어 제국주의”에서 분석한, 세계의 문학과 문화의 교류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놓여있다. 영어, 프랑스어 등 영향력이 있는 언어에서 주변 언어 방향으로 번역이 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소수어인 한국어로 소통되는 문학과 문화는 제목의 발음을 그대로 적는 음역시 잘 이해되지 못하는 현상이 강하다.

김영하의 『빛의 제국』은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의 제목을 상호텍스트성으로 채용한 제목이다. 평양외대 영어과를 다니다가 남파된 간첩 김기영이 남한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가정을 이룬 뒤 자본주의사회의 일원으로 완전히 동화된 삶을 살고 있는 시점에 다시 북쪽으로 24시간 내에 귀환하라는 호출을 받고 존재론적 질문에 봉착, 고뇌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다. 소설의 목차가 인상적인데 24시간을 아침 7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촘촘하게 분절하여 다룬다. (AM 07:00 말 달리자, AM 08:00 꿈을 꾸는 문어단지, AM 09:00 너무 일

찍 도착한 향수, AM 10:00 권태의 무게, AM 11:00 바트 심슨과 체 게바라 [...] PM 10:00 늙은 개 같은 악몽, PM 11:00 피스타치오, AM 03:00 빛의 제국, AM 05:00 변태, AM 07:00 새로운 하루) 이 작품의 제목은 내용의 긴박성을 잘 반영하기 보다는 강정 시인의 평대로 “모든 인간이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빛과 어둠의 불균등한 상존에 대해 이야기 한다”. 내용의 구체성과 긴박성에 비해 제목은 추상적이며, 존재론적인 성찰을 다루는 일종의 이중구조이다. 제목의 경우에도 프랑스어로 *L'empire des lumières*로 직역으로 번역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영어로 출판되면서 *Your Republic Is Calling You*라는 매력적인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다. 이 영어 제목은 작품 내용의 지시기능과 독자를 매혹하는 기능이 잘 수행되었다. 원본의 제목과 다르게 번역된 것은 출판사의 영업 전략이 작용했을 수 있다. 물론 야콥슨의 담화의 6가지 기능의 하나이며 문학텍스트가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능인 시적기능 면에서 “*L'Empire des lumières*”라는 제목은 매력적이지만 프랑스의 독자들은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의 제목에 대한 참조기능을 더 환기하게 되고 이 작품의 주제와는 더욱 거리가 생긴다. 직역 번역이 원제목을 더욱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이나 작품을 매혹적으로 만드는 기능은 완전히 다른 제목을 채택한 영어 제목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Your Republic*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무엇인가 국가적 비밀이 관련된 첩보소설인 듯한 암시적 내용이 표현되어 있다.

김연수의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의 경우 *Si le rôle de la mer est de faire la vague* 라고 프랑스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한글의 제목도 제시기능 등이 모호한 편인데 번역되면서 더욱 모호해진 경우이다. 직역으로 처리하려다 보니 프랑스어의 구문이 성립되지가 않아 한국어의 표현을 풀어서 명시화하다 보니 전혀 시적이지 못한 제목이 되었다. 프랑스어 직역을 다시 직역하면 “바다의 역할이 파도를 만드는 거라면”이 되어 버렸다. 이 제목은 원제의 시적인 함축성이 상실되었고 제시기능 및 매혹의 기능도 그다지 발휘되지 못한 경우이다. 번역자가 원제에 충실한 번역을 1차적으로 제안한 경우 출판사는 이문화의 중재자로서 예민하게 느끼고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도 들어난 것처럼 제목은 상품의 브랜드와 같아서 인지와 제시 및 매혹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몇 예를 살펴본 결과 번역가들은 리스테루치-루드니에키가 언급한 것처럼

가능하다면 원작품의 정체성을 도착어로도 복원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의 90프로 이상이 원제를 직역으로 수용하기 위해 음차의 기법 또는 대응번역을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원제의 뜻 및 구문의 형태를 유지한 반면, 내용 제시 기능 또는 매혹의 기능이 잘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몇 작품의 경우 내용도 짐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을 예로 살펴보았다.

3.2. 변환번역

변환번역은 원제의 주요단어를 대응번역으로 포함하되 원제의 일부가 다른 부분으로 교체가 되거나 첨삭으로 처리된 번역방식을 일컫는다. 355작품 중 총 11개의 작품이 이 방식으로 번역이 되었다.

〈표 1〉 변형방식으로 번역된 한불 소설 목록

원제목 (작가)	번역제목
욕조가 놓인 방 (이승우)	La baignoire
한씨연대기 (황석영)	Monsieur Han
식물들의 사생활 (이승우)	La vie rêvée des plantes
좀비들 (김중혁)	Zombies, la descente aux enfers
두근두근 내인생(김애란)	Ma vie palpitante
찬밥(문정희)	Celle qui mangeait le riz froid
미쳐버리고 싶은, 미쳐지지않는(이인성)	Interdit de folie
포주이야기(김태용)	J'étais un maquereau
심청, 연꽃의 길 (황석영)	Shim Chong, fille vendue
문제적 인간 연산(이운택)	Yonsan
국물 있습니다.(이근삼)	À la soupe!

제목 번역시 변형이 일어난 양상을 살펴보면 원래의 제목을 짧게 줄이는 경우 (욕조가 놓인 방 → 욕조, 한씨연대기 → 한씨, 미쳐버리고 싶은, 미쳐지지않는 → 미쳐지지않는, 문제적인간 연산 → 연산) 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한씨연대기』의 경우 *chronique*(연대기)이라는 표현을 넣게 되면 고전장르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주인공의 이름만을 제목으로 취한 경우이다. “미쳐버리고 싶은 ~”의 경우는 프랑스의 제목의 짧은 제목이 제시적인 효과를 잘 표현

하고 있어서 전체를 길게 번역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 평가된다. 단지 “연산”의 경우 외국독자들은 인명, 지명 등 명사형만 보아 전혀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산을 수식하는 단어가 포함이 되는 것이 더 작품을 잘 소개하는 기능을 수행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한국어 원제목은 “문체적 인간”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통해서 성격장애를 가진 왕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지만 프랑스어 번역에서는 좀처럼 짐작을 할 수가 없다. 또 표기법에 있어서 (복잡한 문체이므로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맥킨하우사위 표기법을 사용 발음 부호가 첨가된 것 역시 제목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지 않는다.

“좀비들”의 경우에는 프랑스 문화권에서 그다지 좀비라는 존재와 친근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내려가기”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작품의 분위기를 연상시키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 외에 제목이 변경된 방식을 분석해보면, 『식물들의 사생활』이 “식물들이 꿈꾸는 생활”로 바뀌었다. 식물들의 사생활을 직역하면 불어의 구문 상 식물들의 내밀한 생활보다는 개별적인 사랑이란 뜻으로 더 읽히고 나무들에게 적용하기가 어색해진다. 그래서 연구자도 포함된 번역가와 출판사는 사랑을 이루지 못한 주인공들이 나무에 비유되는 이 소설의 주제에 더 맞고 그들의 염원이 더 잘 표현된 “꿈꾸는” 삶으로 변환을 하였다.

김애란 작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의 경우, 한국어에 흔한 의태어, 의성어가 제목에 포함이 되어있어 등가를 추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동일한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 언어의 경우 등가의 효과를 위해서 설명적인 표현을 택하게 되는데 그 경우 작품의 제목이 가지고 있는 함축성을 잃게 된다. 직역처리 시 프랑스어 구문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사가 아닌 수식어로 처리를 하여 제목의 긴장감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포주이야기”의 경우, 원제는 명사형이나 번역문은 “나는 포주였다”라는 문장으로 변형이 이루어졌다. Autofiction 등 자전적 내밀한 소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프랑스 문학지평에서 제삼자의 이야기와 같은 느낌을 주는 포주이야기보다 화자가 포주였다는 고백은 더욱 흥미와 비장미조차 유발시킨다. 이 제목은 세 개의 단편으로 구성된 한국문학단편집에서 선택된 것으로 출판사는 “포주이야기”외에 “금고에 갇히다(김언수)”, “엇박자 D (김중혁)”의 작품 중에서 이 작품이 가장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전략으로 제목을 선택한 것이다. 직

역을 탈피하여 의도적으로 선정적이며 도발적인 제목으로 흥미유발 효과를 누린 것으로 평가된다.

『국물 있습니다』가 À la soupe!로 번역된 방식 역시 언어적, 기능적으로 성공적이라 판단이 된다. 한국어의 존칭어미 ‘있습니다’의 고어적인 느낌의 대응번역이 가능하지도 않으며, 또 구문 상 프랑스어의 존칭 2인칭 복수를 쓰게 되면 주어+동사의 구문이 활용되어야 하므로 제목이 길어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번역자들은 짧으면서도 연극작품의 정서를 잘 살린 구어적 표현을 등가로 채택하여 작품 내용을 암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독자의 뇌리에 남는 제목을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형태적으로는 대응이 아닌, 의미와 효과의 등가를 살려낼 수 있는 프랑스어의 표현을 추구한 성공적인 번역인 것이다.

가장 적극적인 변환전략은 황석영의 『심청, 연꽃의 길』이 “심청, 팔려간 여자”로 번역된 것이다. 심청설화는 판소리를 비롯 여러 작가에 의해 문학 작품화 하였으며 황석영은 이 설화를 근대 매춘산업에 희생된 여성의 운명을, 식민지 근대화를 겪은 한반도의 운명에 치환처리, 거시적으로는 동아시아 근대의 역사적 부침을 다루고 있다. 연구자를 포함한 이 작품의 번역자들은 원작의 제목을 존중하여 1차 번역을 시행하였으나 출판사에서 독자들의 관심을 더욱 끌고자, 추상적인 “연꽃의 길” 대신에 직설적으로 “팔려간 여자”라는 표현을 덧붙였다. 원제가 효녀 설화 주인공인 여성의 운명을 부각한 것이라면, 번역문은 산업화 되기 시작한 매춘업의 희생양이 된 근대여성의 운명에 더 초점을 둔 것이다. 이런 초점의 전환은 독자의 독서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프랑스의 가장 저명한 일간지 르몽드의 문학담당 닐 알(Nils C. Ahl)기자는 다음과 같이 2010년 2월 25일 기사에 평을 적은 바 있다.

“Publié en 2003 à Séoul, *Shim Chong, fille vendue* ne ressemble à aucun de ses précédents romans. A l'origine, il s'agit d'une légende populaire, puis d'un pansori - l'opéra traditionnel coréen, proche d'un récit épique chanté et mimé. Hwang Sok-yong en reprend les termes principaux de l'intrigue mais la délocalise : Shim Chong renaît au XIXe siècle, en mer de Chine. Vendue par son père, elle devient courtisane à 15 ans, s'échappe et s'élève de port en port : Shanghai, Taïwan, Singapour, jusqu'à l'archipel des Ryukyu, où un prince tombe amoureux d'elle.

Epique et romanesque, le texte de Hwang Sok-yong se goûte pourtant comme un poème. Erotique, souvent, mythologique parfois, et plus étrangement : politique. On ne change pas un écrivain.

A l'évidence, *Shim Chong, fille vendue* est construit comme un pont jeté au-dessus des temps littéraires et de l'histoire. En mêlant les formes, les styles et les périodes, Hwang Sok-yong parsème son roman d'échos et d'allusions qui laissent une impression permanente de vertige et de profondeur. Le parcours du personnage principal en rappelle d'autres, depuis les "femmes de réconfort" pendant la seconde guerre mondiale jusqu'à des formes contemporaines de prostitution en Asie du Sud-Est.

Plus insidieusement, on se souvient de ces jeunes filles coréennes de familles pauvres envoyées à l'usine dans les années 1970 - un exil et une exploitation des corps d'une violence souvent comparable. Trafic de drogue et traite des femmes n'appartiennent évidemment pas au XIXe siècle, l'originalité de Hwang Sok-yong est d'en avoir fait une épopée complexe aux références multiples, dont le corps - son histoire, ses douleurs, son plaisir - est au coeur du mouvement.

2003년에 서울에서 초판이 나온 『심청, 팔려간 여자』는 황석영의 이전의 어떤 작품과도 유사성이 없다. 심청설화에 바탕을 둔, 1인 서사극 오페라의 일종인 판소리로 불리는 심청에서 작가는 주요 열쇠말과 줄거리를 취하여 외국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소설 심청은 19세기를 배경으로 하며 중국해가 주요 무대이다. 15세에 아버지를 위해 팔린 심청은 도망쳐서 여러 항구를 돌게 된다. 상하이,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류큐 제도에 와서는 영주의 사랑을 받게 된다. 서사시적이며 소설적인 황석영의 텍스트는 시처럼 읽힌다. 상당히 에로틱하고 때로는 신화적이고 더 흥미로운 것은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한 작가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여기서 느낀다.

『심청, 연꽃의 길』은 문학과 역사의 시간을 너머 걸쳐진 다리처럼 구축이 되었다. 다양한 형태와 문체와 시대를 섞은 소설에서 황석영은 곳곳에 메아리와 암시를 심었고 그것은 끊임없이 현기증과 깊이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주인공의 여정은 또 다른 여인네들의 여정, 2차 대전 중 일본군 '위안부'였던 여성들과 최근의 동남아의 매춘여성을 환기시킨다.

더 암시적으로는 1970년대에 공장으로 보내졌던 가난한 가정의 소녀들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이들은 심청과 비교할 만한 폭력적인 추방상태와 육체적 착취를 겪었던 것이다. 마약과 여성매매는 19세기에만 존재하는

현실이 아니며 황석영의 독창성은 여성 신체의 역사, 고통, 쾌락을 중심에 두면서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환기하여 복합적인 서사시를 완성해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작품의 제목이 번역을 통해 변환되면서 주인공의 캐릭터가 변화되어 수용된다는 분석도 있다.

Les traducteurs qui, osant changer les titres, changent par là même l'essence du héros. Ainsi, cette métamorphose récente de Gatsby le magnifique (Great Gatsby), en seul Gatsby, sur la couverture, privant le personnage de sa plendeur, lyrique et dérisoire. Mais Fitzgerald lui-même n'aimait pas son titre, ayant hésité entre "Gold-Hatted Gatsby" et "High Bouncing Lover". Et puis, les lecteurs avançant dans le roman de Fitzgerald pour la première fois ne vont-ils pas finalement aimer découvrir, par eux-mêmes, que Gatsby est... magnifique? (Zoé, 2013:52)

번역가가 제목의 변환을 시도하면, 주인공의 본질마저 바뀌기도 한다. 위대한 개츠비의 제목이 최근에 프랑스어로 개츠비라고만 번역이 되면서 표지에서 주인공이 가지고 있던 서정적이면서도 조롱적이던 찬란함을 지워 버린 것이다. 그러나 피츠제럴드 본인이 이 제목을 좋아하지 않았고 “황금 모자의 개츠비”와 “하이바운스 러버”라는 제목을 두고 망설였다고 한다. 독자들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개츠비가 그러니까... 위대하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 싶다.

형용사의 침삭에 따라 주인공에 대한 첫인상이 확연히 달라진 『개츠비』의 예 외에도 제목에 문화적인 요소가 암시된 경우 전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문정희의 시집 『양귀비꽃 머리에 꽂고』의 대표적인 작품인 “찬밥”이 제목으로 선택된 프랑스 어판 시집은 프랑스어로는 “찬밥을 먹던 여인 (Celle qui mangeait le riz froid)”정도로 번역이 되었다. 이 제목은 1차적으로는 작품의 내용을 원제보다 더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원제와의 의미적 등가도 성립이 되었다. 그러나 문화적인 요소의 전달을 갖대로 적용하게 되면 미흡한 점이 드러난다. 시의 내용은 아픈 화자가 식사를 준비할 기력이 없어서 찬밥을 먹으면서 언제나 찬밥을 먹던 어머니를 떠올리고 한국의 문화에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는 찬밥을 먹던 여성들의 입장에 대한 공감 및 지위에 대한 인식을 하는 시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어로 “찬밥”으로만 번역을 하게 되면 식어 맛이 없는 밥의 의미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한국어에서는 “찬밥”이 갖는 문화적 암시가 충분하기 때문에 외연화가 불필요하지만 프랑스어의 경우에 직역으로는 전달이 되지 않는다. 프랑스어 제목은 시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수용하게 한다. 이 경우 직역적인 처리보다는 수식어 또는 환유적 장치를 통해 보완해야 원제의 의미가 총체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변환번역의 예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번역자들이 언어적으로 더 함축적이며, 내용을 잘 제시하고 독자의 관심을 끄는 효과를 내는 제목을 선택하려는 노력을 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첨삭, 일부 어휘 교체 등을 통해 변환이 이루어지면서 참신한 제목이 선택되어 그 기능들이 잘 발휘된 몇 예를 보았다.

3.3. 변경번역

변경 번역의 경우는 전체 대상 코퍼스 중에서 14개의 작품이 해당된다.

〈표 2〉 대체방식으로 번역된 한불 소설 목록

원제목 (작가)	번역제목
소년이 온다 (한강)	Celui qui revient
심청전	Le bois sec fleuri
낮익은 세상 (황석영)	Toutes les choses de notre vie
높고 푸른 사다리 (공지영)	L'échelle de Jacob
그곳에 밤, 여기에 노래(김애란)	Nocturne d'un chauffeur du taxi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김영하)	La mort à demi-mots
별과 같이 살다(황순원)	La petite Ourse
위풍당당(성석제)	À qui mieux mieux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	Hors les murs
혀(조경란)	Mise en bouche
위저드 베이커리(구병모)	Les petits pains de la pleine lune
상속(은희경)	Qui a tendu un piège dans la pinède par une journée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조세희)	Ce n'est pas la faute de Dieu
하늘의 맨살(마종기)	Celui qui garde ses rêves

『상속』, 『위저드 베이커리』 등 단편집은 경우 원제목과 다른 작품의 제목이 선정, 번역된 경우이다. 『위저드 베이커리』의 경우 단편집에 속한, “땅콩버터 맛 대 보름빵”을 제목으로 교체하여 그 일부를 번역하였으나 프랑스어로 구체적인 의미가 파악이 되지 않으며 동화의 제목과 같이 느껴진다. 『상속』의 경우에도 제목이 바뀌면서 “누가 꽃피는 봄날 리기다소나무 숲에 덮을 놓았을까”라는 제목이 “꽃피는 봄날”이 없이 번역이 되면서 등가의 뜻이 구현되지도 내용의 지시기능 및 독자의 유혹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다. 단편집의 경우 원제와 다른 작품의 제목을 고르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는데 특히 출판사가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의 경우 “다시 오는 자”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면서 작가에 따르면 광주민주화운동에서 학살당한 혼을 환기시키는 뜻이 되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정확하게 작품 내용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한다. 이 경우 제목이 대체된 것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높고 푸른 사다리』는 성경에 나오는 “야콥의 사다리”라는 잘 알려져 있는 표현으로 대체가 되면서 소설 속의 고난에 찬 수사의 상황을 잘 반영하며 작품의 분위기를 잘 전달하고 있다. 원제가 시적이기는 하지만 구체성이 부족한 반면, 프랑스어 제목은 작품의 배경 등을 바로 짐작하게 하는 환유적인 제목이다. 『그곳에 밤, 여기에 노래』는 한국문학단편집으로 김애란 작가의 시적인 제목이 대표제목으로 선정이 되었고 프랑스어의 구문 상 직역을 하게 되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택시 운전사의 야상곡”으로, 음악이라는 동질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제목을 대치한 사례이다. 구원처럼 온, 중국인 아내와의 짧은 사랑이야기를 택시 운전사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밤주행을 하면서 테이프를 듣는 정황이 ‘야상곡’이라는 표현을 통해 잘 전달된다고 파악된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경우, 두 작품 모두 그대로 직역했을 경우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 되기 때문에 더 함축적인 제목을 선정한 경우라 할 수 있지만 번역된 제목에서 작품의 지시기능이 강화되거나 작품의 내용을 더 잘 파악하게 하거나 특별히 매혹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한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가 가지고 있는 전복적인 내용이 오히려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다. “외부로”란 뜻으로 번역된 *Hors les murs* 역시 번역제목이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런가 하면 20세기 초에 번역이 된 것으로 알려진 『심

청전』의 경우 어떤 경위로 *Le bois sec refleurit*(다시 꽃이 핀 마른 나무)로 번역이 되었는지 알 길이 없으며 제목의 세 가지 기능 역시 만족시키지 못한다. 오리엔탈리즘과 이국적 정서가 유행하던 시기에 소개가 되었다는 내용이 알려져 있다. 『혀』의 경우 직역하면 *la langue*가 되는데 언어라는 뜻도 있는 다의어라 입에 넣기(*mise en bouche*)라고 제목이 바뀌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어 제목은 작품에서 혀가 갖는 충격적인 효과를 암시하지는 못한다. 『낮익은 세상』의 경우는 프랑스어 판 번역에 대해 작가가 “익숙한 것들”로 제목을 바꿔줄 것을 요청했고 연구자도 포함된 번역자들과 출판사 편집부와 여러 차례 협의 후에 *Toutes les choses de notre vie* (우리 삶의 모든 것들)로 결정되었다. 직역을 피하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익숙해진 것들에 대한 은유적 제목을 제시하는 시도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제목의 추상성으로 인해서, 쓰레기장에 버려진 우리에게 친근했던 물건들, 그들에 깃들인 도깨비의 세계, 국가가 폭력적으로 수용해버린 토지에 살았던 자들의 세계 등에 대해 다루는 이 작품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성석제의 『위풍당당』은 *À qui mieux mieux*로 교체되어 번역이 되었는데 원제의 부사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번역가들이 프랑스어의 관용표현을 사용하여 등가를 구현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보인다. 프랑스어의 표현은 서로서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모습을 그리는 부사구이다. 이 제목은 원제와의 의미 등가성이 성립될 뿐만 아니라 작품의 내용을 잘 환기시키고 독자의 흥미도 유발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공』 단편집의 프랑스어 제목은 *Ce n'est pas la faute de Dieu*(신의 잘못이 아니다)다. 단편집의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를 대표단편으로 하여 완전히 원제와 반대로 번역이 진행된 독특한 경우이다. 이 단편집은 인간이 배제되는 극단적인 산업사회와 압축성장의 도래로 고통받는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그 중 한 편인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는 잘못되어가는 인간사에 신의 무심함을 탓하는 제목이다. 고용주와 노동자의 문제를 다루는 이 단편소설의 제목이 번역과정에서 왜 정반대의 뜻이 되어, 의미의 등가가 성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작품의 지시기능이 완전히 달라졌다. 신의 절대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신성모독으로 처리되는 문화권이었다면 제목 번역시에 어떤 조치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프랑스어 문화권은 전혀 그

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제목 대체는 설명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별과 같이 살다』가 *La petite Ourse* (작은곰좌)로 번역이 된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소설을 출판한 쥘마사의 세르주 사프랑 편집장은 한국문학번역원과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이 공동주최한 번역학 학술대회에서 한국어 제목을 그대로 번역한 경우 프랑스어로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문장이 되어 제목을 작가의 허락 하에 바꾸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4: 7). “별과 같이 살다”는 황순원 작가에 따르면 별처럼 깨끗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의 이정표를 의미한다. 프랑스어로 *vivre comme une étoile* (별처럼 살다)/*vivre comme des étoiles*(별들처럼 살다)/*vivre avec les étoiles*(별과 함께 살다) 등으로 가능한데 프랑스어에서 “별”이라고 하는 것에 한국어에서 부과한 깨끗하고 숭고한 지표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직역시 구체적인 뜻을 알 수 없는 문장이 된다. 연구자도 포함된 번역자들이 이점에 대해서 작가와 의논을 했고 작가는 번역가들에게 적절한 번역제목을 찾으라고 권하였고, 번역자들은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여주인공이 못생겨서 곰녀라 불리는 점을 활용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 불운을 겪는 여주인공은 성인이 되어서도 곰녀라 계속 불릴 정도로 외모가 투박한 것으로 묘사된다. 별자리 중 여행자들을 안내하는 작은 곰좌와 곰녀를 연결 *La petite Ourse*를 생각하게 되었고 제목으로 결정이 되었다. 곰녀라는 인물의 명칭임을 상징하기 위해서 프랑스어의 일반적인 보통명사를 소문자로 표기하는 방식이 아닌 O를 대문자 처리하여 일반적인 “작은 곰 별자리”가 아닌 중의적인 뜻이 있음을 암시하였다. 이 예는 제목의 번역에 있어서 언어 대응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번역자가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방식으로 제목의 기능을 만족시키는 등가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결론

지금까지 한국문학 작품의 프랑스어 번역 작품들을 대응번역, 변경, 변환번역이라는 세 가지 기법을 중심으로 분류, 제목의 세 가지 기능이 구현되었는지에 대해 정량분석 및 일부 작품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직역이 거의 90프로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주로 음차,

언어대응 번역 등의 기법이 활용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번역은 원제목의 언어적 뜻을 그대로 프랑스어로 대응시키는 기법을 사용하여 원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능이 어느 정도 구현되는 효과를 얻었다. 원제목과의 언어적 정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도착어에서 언어적 저항이 발생하여 원제목의 형태, 구문의 보존이 어려울 때 첨삭 등의 변형작업이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변형작업의 경우에도 제목의 의미 등가성의 실현에 중점을 둔 경우 문화적요소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서 본문의 내용 전달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였다. 제목의 변경을 시도한 번역자는 대응역에 만족하지 않고 도착어의 관용어표현 등을 활용한 제목을 제시했는데 이때에 제목의 지시, 내용제시, 독자의 유혹의 기능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몇 제목의 경우는 출판사의 전략적인 개입으로 제목에 변화가 생긴 경우이다. 대응번역이 불가능하지 않았지만 구문이 길어지거나 제시의 기능, 유혹의 기능이 감소한다고 판단된 경우, 변환 또는 변경으로 처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다수의 번역자들이 제목의 뜻을 대응번역으로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이들 제목의 일부는 도착어에서 등가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변환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총 25편 제목의 경우도 번역자와 편집자의 개입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일부 시도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불 문학번역 현장에서 제목의 처리는 소극적인 대응역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의미적 등가, 구문의 정합성이 확보되었다고 여겨지는 대응역 또는 직역의 경우 사실은 번역어에서 밋밋하며 독자의 관심을 끄는 과감한 제목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몇 제목의 경우는 출판 전략적으로 과감하게 창의적인 변형, 변경을 시도하였다고 판단된다. 프랑스어 번역이 한국문학의 해외소개에 있어서 작품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제목은 더욱 적극적이며 전략적인 방식으로 처리가 될 필요가 있다. 세르주 사프랑 쥘마 출판사 편집장(2004)은 한국문학을 해외에 잘 알리기 위한 제언에서 좋은 번역의 첫 단계는 바로 제목에서 시작한다면서 프랑스어권 독자와 문학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참신한 제목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단순하고 짧으면서도 의미심장한 제목, 이국적이면서도 보편적 주제를 다루는 제목, 프랑스 출판계에서 뜻밖의 제목으로 원문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고슴도

치의 우아함”과 같은 제목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재번역이 어려운 출판 상황인 만큼 처음 번역이 될 때 소극적인 원문의 대응문의 제시가 아니라 제목의 기능들을 잘 완수하면서도 돋보이게 언어적 경계를 넘어서는 혼성적인 번역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데리다(1998)¹¹⁾는 『베니스의 상인』의 한 구절인 “When mercy seasons justice”의 프랑스어 번역에서 seasons를 가장 대응적인 동사인 assaisonner가 아닌 relever로 번역해야 정의가 고유의 맛을 가지고 있지만 더욱 맛이 나는, 고양된 맛, 즉 용서, 자비 덕분에 정의가 더욱 정의롭게 고양, 승화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가장 원어에 충실한 번역이 사실은 저자와 내용에는 충실한 결과를 가져 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소극적인 번역에서 벗어나 제목은 원문이 말하는 것, 어쩌면 원문이 미처 말하지 않는 것도 환기, 고양시킬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듯하다.

번역된 제목들과 일부 알려진 번역가와 출판사의 전략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한 본 논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번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문학 번역 언어쌍 간의 제목처리 양상을 연구하여 한국문학에 참조하거나, 번역가와 출판사 편집장들의 인터뷰를 통해 제목번역의 메커니즘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Baker, Mona (2011) *In Other Words: A Course book on Translation*, second edi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Bensimon, Paul (2004) *Palimpsestes, De la lettre à l'esprit : traduction et adaptation*, Paris: Presses de la Sorbonne Nouvelle.
- Besa Camprubi, Josep (2002) *Les Fonctions du titre*, Limoges: Pulim.

11) “Portia dira aussi, *When mercy seasons justice...* que je proposerai plus tard de traduire par *Quand le pardon relève la justice...*”

- Cachin, Marie-Françoise (2006) 'À la recherche du titre perdu', Palimpsestes, Presses de Sorbonne Nouvelle
- Calvet, Louis-Jean & Griolet, Pascal (1999) *Impérialismes linguistiques hier et aujourd'hui*, Actes du colloque franco-japonais de Tôkyô (21,22,23 novembre 1999), Aix-en-Provence: 159-171. Eco, Umberto (2006) *Dire presque la même chose, expérience de traduction* (traduit par Myriem Bonzaher), Paris: Grasset.
- Derrida, Jacques (1998) 15ème Assises de la traduction littéraire à Arles, "Qu'est-ce qu'une traduction relevante?", Arles.
- Furtière, Antoine (1666) *Roman bourgeois*, Paris: Claude Barbin
- Genette, Gérard (2002) *Seuils*, Paris: Seuil.
- Hoek, Leo H (1981) *La marque du titre, Dispositifs sémiotiques d'une pratique textuelle*, La Hague-Paris-New York: Mouton.
- Israël, Fortunato & Lederer, Marianne (2005) *La théorie interprétative de la traduction, I, II, III. De la formation à la pratique professionnelle*, Paris, Minard.
- Nord, Christiane (2006)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번역행위의 목적성, 정연일, 주진국 역), 한국외대출판부.
- Raissossadati, Reyhané (2000) 'La traduction des littres littéraires', Recherches en langue et littérature françaises, Revue de la Faculté des lettres, Année 5 (n.7).
- Risterucci-Roudnicky, Danielle (2008) *Introduction à l'analyse des oeuvres traduites*, Paris: Arman Colin.
- Safran, Serge (2004) "문학번역에 있어서 충실한 번역이란 무엇인가?", 한국문학번역출판국제워크숍 발표집, 한국문학번역원과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공동주최
- Sapiro, Gisèle : <http://www.sgdl.org/la-documentation/les-dossiers/1115-des-echanges-inegaux-geographie-de-la-traduction-a-l'heure-de-la-mondialisation>
- Zoé, Vayssières (2013) *Le titre dans tous ses états*, Paris: Archibooks+Sauterne éditeur.

- 김순영 (2009)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본 소설 제목의 번역」, 『통역과 번역』 11(1): 3-26.
- 남윤지 (2015) 「잃어버린 제목을 찾아서-서사텍스트의 제목번역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번역학연구』, 16(3), 85-126.
- 남윤지 (2012) 「Traduire le titre : enjeux sémiotique et théorique de la traduction des titres d'oeuvres narratives (France-Corée)」, Paris 8대학 박사 학위논문.
- 이상빈, 임종우 (2016) 「외화자막의 번역규범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연구」, 『번역학연구』, 17(1), 127-146.
- 오미형 (2012) 「한국영화의 제목번역 고찰」, 『번역학연구』, 13(1), 59-85.
- 최미경 (2011) 「『심청, 연꽃의 길』 상호텍스트성의 프랑스 수용사례연구」, 『프랑스학연구』, 58, 423-444
- 최미경 (2012) 「프랑스에서의 한국문학 : 무엇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프랑스학연구』, 62, 299~328.
- 최미경 (2012) 「La littérature coréenne dans le paysage éditorial français et les modalités de traduction (프랑스 출판시장 내의 한국문학과 번역방식)」, 『프랑스학연구』, 66, 297~319

인터넷 자료

www.klti.or.kr

<http://www.meetingsaintnazaire.com/-2015-Traduire-la-vie-270-.html>

<http://blog.naver.com/itlk?Redirect=Log&logNo=220664249805>

[Abstract]

**Analysis of title of translated literary works:
equivalence and functions**

Choi, Mikyung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French translation of the titles of translated Korean literary works. Our corpus consists of 355 books titles published in France from 1892 (when *Printemps parfumé*, the first Korean book translated into French was published) to the present days. Our aim is to explore the different kinds of translation methods which are used. We try in particular to show whether the method used is efficient with respect to each of the three main functions of any title, which are being designative, descriptive and seductive.

Our analysis reveals that more than 90% (330 titles) are translated literally by linguistic correspondence; translators seem to rely on this process for the sake of fidelity and security. In some cases, the translated title does not have exactly the same meaning in French; moreover, its seduction power is often weakened. This is a detrimental loss since the French book market often plays the role of a bridge towards other European languages or North and South America markets.

Two other methods are used, namely a simple alteration of the original title and a substitution of the title by a new one. When literal translation alters the meaning of the original title or produces a too long sentence in French, some translators try to modify the title, more often than not with success. The question is to decide whether those alterations meet a real justification and if they still reflect the meaning and the effect the author chose to express.

Our study shows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by translators in this respect

and advocates the need of a negotiation with the publisher of the translated text. The title of any literary work is a sophisticated element that must be handled in taking into account several criteria not only in terms of equivalence of meaning but also in terms of function and effect. When it comes to translating a title, translators are expected to act even more actively and creatively than ever.

▶ Key Words: title translation, 3 methods of translation, 3 functions of title, equivalence, negotiation between author, translator and publisher

최미경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불전공

wafwaf@ewha.ac.kr

국제회의 통역, 문학번역

논문투고일: 2016년 7월 31일

심사완료일: 2016년 9월 5일

게재확정일: 2016년 9월 22일